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원, ‘전환치료’ 금지법안 통과…복음주의 연맹 “목회 자유 위협될 수 있어”**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네덜란드 복음주의연맹(MissieNederland)이 네덜란드 의회가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목회 현장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을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기독교민주당(CDA)은 처음에 사회자유민주당66(D66)과 자유민주국민당(VVD)이 발의한 이 제안을 막았다. 그러나 법안 문구가 수정되면서,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지도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체계적·침해적인 경우’에만 불법으로 규정되자, 기독교민주당이 지지를 표했고, 지난 9월 9일 네덜란드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상원 승인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제화된다.

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제화된다.

복음주의연맹은 표결 전 이미 정치권과 교회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성적 지향을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나 폭력적·강압적 치료는 반대하지만, 스스로 고민하며 목회적 상담과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우리는 강제로 정체성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목회적 공간이 위협받는다면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성과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원할 경우, 자발적 상담과 기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법안의 취지가 강압적 치료 금지에 있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신 생활을 권유하는 것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안이 모호하면 목회자들이 불이익을 피하려 대화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 이는 성적 고민을 안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연맹 지도자들은 전했다.

그럼에도 복음주의연맹은 자신들의 우려와 권고가 의회 토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된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여러 정당, 교회, 단체, 개인들과의 건설적인 협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법안의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네덜란드에서 성적 지향과 종교적 자유, 목회적 돌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유다서 1:21,23)**

하나님, 네덜란드가 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통과시키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기회마저 박탈하려는 시도를 꾸짖어 주옵소서. 불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정책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부의 타협한 말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안에 깨어있게 하소서. 또한 정욕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게 하시되 주의 사랑과 긍휼로 영혼들을 섬겨 죄의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하마스 지도부, 가족 탈출 시도…주민들에겐 대피 금지 강요

가자지구의 하마스 지도부가 가자시티 주민들에게는 이스라엘군(IDF)의 대피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과 가족들은 가자지구 탈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정부활동조정실'(COGAT)은 14일 하마스 고위 인사들이 이스라엘에 가족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일부는 자신들까지 가자지구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청은 거절됐다.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이 만든 것처럼 꾸민 가짜 대피 지도를 주민들에게 배포해, 이미 봉쇄된 전투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속였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그리고 하마스가 가자시티 소속 직원들에게 도시를 떠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스라엘 정부활동조정실 국장은 “하마스의 위선은 노골적”이라며, “지도부는 가족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가해 가자시티에 남도록 강요하며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자 주민들에게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군의 말을 따르라고 경고하며 “조직의 거짓말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가자시티 주민 100만 명 중 약 30만 명이 남부 인도주의 구역으로 이동했다고 추산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잠언 2:7,11-12)**

하나님,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는 위협과 공포를 가해 탈출을 막으면서도 정작 자신과 가족들은 탈출을 서두르고 있는 하마스의 비열하고 악의적인 만행을 주께 고합니다. 주여,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 삼는 하마스를 꾸짖어 주시고, 생존이 절박한 주민들의 온전한 방패가 되어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시하시라 그들의 영혼까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 본향을 소망케 하소서.

### ▲ 법원, 총신대 ‘동성애 지지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무효 판결

법원이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게 기독교 이념 위반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파이낸셜뉴스 등 국내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총신대는 징계 무효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21일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게 내린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동성애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뒤, 해당 모임의 단체대화방에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명단을 유출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총신대는 이를 ‘동성애 지지 행위’로 간주해 A씨에게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내렸다. 당시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먼저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신앙과 교리 해석의 문제로,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학의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제지한 행위는 곧바로 ‘동성애 지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학교나 교단에 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새로운 해석과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 가입을 이유로 무기정학까지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디모데전서 6:11-12)**

하나님,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신학교에서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동성애를 지지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를 무효 판결한 법원의 결정에 애통하며 나아갑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총신대가 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더욱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힘쓰게 하시고, 이 일이 모든 교회로 하여금 더욱 살아있는 영성으로 깨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와 경건과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리라” 개종금지법 강화...기독교 신앙 위축



인도 전역에서 주(州) 정부들이 기존 개종방지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힌두교 외의 신앙을 따를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 순교자의 소리(VOM) 그렉 머슬맨(Greg Musselman)에 따르면, 현재 인도 28개 주 가운데 약 12개 주가 개종금지법을 시행 중이며, 이들 법안 대부분은 나렌드라 모디와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이후 제정되었다.

그런 법안들은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 개종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조용히 숨기며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다. 인도는 10-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으로서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머슬맨은 말했다.

북부 우타라칸드 주는 올여름 기존 개종금지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선교 활동까지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머슬맨은 “우타라칸드가 처음으로 디지털 매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복음 전파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차티스가르 주의 수도 라이푸르에서는 2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더 이상 개인 주택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통보받았으며, 이제 예배는 공식 등록된 건물에서만 허용된다.

머슬맨은 “당국은 이 가정교회들에서 불법 개종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한 목회자가 그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금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이의 신청이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회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개종금지법은 또한 기독교로 개종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천국이나 지옥을 전하는 설교는 물론, 가난한 자나 임종을 앞둔 이들을 돌보는 것조차 ‘자비와 친절을 빌미로 한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이 체포되며, 지도자들은 압박을 받고 가정교회 모임이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 인도의 형제자매들은 이것이 영적 전투임을 알고 있으며,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을 알고 있다. 머슬맨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기도다. 우리는 인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미션네트워크뉴스, 기도24:365본부 종합).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베드로후서 1:10-11)**

하나님, 개종 방지법을 강화하여 개인의 신앙을 제한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한 복음 전도까지 통제해 갈수록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를 더 하는 인도 정부를 책망하소서. 이로 말미암아 예배가 금지당하고, 구금되는 제제와 압력 가운데 있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기도에 힘쓰는 형제자매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소망의 땅임을 고백합니다. 몸 된 교회를 통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을 복음으로 부흥케 하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필리핀, 정치권 비리 규탄 시위

최근 인도네시아, 네팔, 티모르레스테(동티모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 특권과 부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정치권의 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져 216명이 체포됐다고 22일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21일 오전 대통령궁 인근 리살 공원 일대에서 시작한 시위에는 최소 3만 3,000명이 참여해 전반적으로는 평화롭게 이어졌으며, 이들은 최근 홍수 예방 사업과 관련한 상·하원 국회의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을 규탄했다. 그러나 수도 마닐라 대통령궁 인근에서 거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국가경찰 대변인 란돌프 투아뇨는 “폭력적 행동을 한 성인 127명과 미성년자 89명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 운동가 알테아 트리니다드는 “우리는 가난에 허덕이며 집과 미래를 잃어가는 동안 그들은 세금으로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수 피해가 잦은 필리핀은 지난 3년 동안 9,800건이 넘는 홍수 예방 사업에 약 5,450억 필리핀페소(약 13조2,000억 원)를 투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패로 인해 상당한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약 423억-1,185억 필리핀페소(약 1조300억-2조8,800억 원)로 추산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언 21:3)**

하나님, 홍수 예방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부패와 비리로 인해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부와 대규모 시위로 규탄에 나선 국민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탐심과 분노를 다스릴 분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십자가 복음으로 부패한 심령을 바꾸사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주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 의 공의와 정의를 힘써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소서.

### ▲ 시리아, 10월 5일 의회 총선거 시행

시리아 과도정부가 10월 5일(현지시간)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치른다고 22일 연합뉴스가 국영 뉴스통신 SANA를 인용해 보도했다. 시리아 최고선거위원회는 21일 선거인단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작년 12월 시리아 반군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쫓겨나고 의회가 해산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총선은 유권자 직접선거가 아닌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석 규모는 210석으로 반군 수장이었던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이 중 70석을 지명하고 나머지 140석은 선거로 선출될 예정이다. 알샤라 임시대통령은 지난 7월 “시리아의 모든 주(州)에서 선거가 이뤄져야 하나 분열과 종파주의를 주장하거나 범죄자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종파 간 유혈 충돌이 벌어졌던 남부 스웨이다와 쿠르드족이 장악한 동북부 라카와 하사가 등지의 19석은 이번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는 시리아 총선을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된 권력 재편 도구로 규정하며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시편 86:11)**

하나님, 시리아의 독재정권이 물러난 뒤 처음 열리는 총선에 주의 간섭하심을 구합니다. 유권자 직접선거가 아닌 임시 대통령의 지명이 포함된 소수 인원에 의한 간접선거가 위정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모든 분쟁과 가난, 박해가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다르려 주소서. 또한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두신 그 땅의 교회를 기억하사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주의 도를 가르치사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온라인 종교활동 전면 규제...미성년자 전도·AI 활용·모금까지 금지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종교 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통제하는 규정을 발표해, 미성년자 전도·온라인 예배·인공지능(AI) 활용·모금까지 차단하고 모든 종교 활동을 공산당 이념과 국가 검열 아래 뒀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이 19일 보도했다.

종교 자유 매체 비터윈터는 이번 조치가 종교 생활에 대한 중국의 개입 중 기술적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온 사례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설교 스트리밍과 디지털 사역 시대에 설교나 종교적 발언을 사회적 공간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성직자는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포럼, 그리고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보유한 플랫폼에서만 설교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워킹 그룹, 라이브 방송 등은 종교 교육 수단으로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자기 홍보는 금지되며, 성직자는 종교적 정체성을 이용해 팔로워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할 수 없다. 외국과의 연계도 금지된다. ‘해외 종교 침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는 성직자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종교 교육, 캠프나 훈련 프로그램 조직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또한 성직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종교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수 없으며, 온라인 모금이나 종교 상품 판매, 라이브커머스 활동도 금지된다. 종교 의식과 예배 역시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다.

규정은 모든 종교 활동이 중국공산당 지도와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 반대·국가 전복·사회 안정 훼손 내용을 금지하고 종교의 ‘중국화’를 지지해야 한다. 위반자는 종교 자격 정지, 계정 폐쇄, 형사 조사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플랫폼 운영자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번 규정은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마카오·대만은 물론 해외 성직자의 중국 대상 온라인 활동에도 적용된다. 외국 단체와의 협력이나 ‘해외 종교 침투’를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비터윈터는 “새 규정은 자발적인 온라인 종교 표현을 범죄화하고, 성직자를 국제 종교 담론에서 고립시키며, 모든 신앙 발언을 국가 검열 아래 두게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편 46:1)

하나님,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내세우며 온라인에서까지 모든 종교 활동을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악한 사상을 꾸짖어 주십시오. 진리를 전파하고 듣는 것을 차단해 주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배후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억압과 위협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임을 중국이 알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위로하사 피난처요 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브라질, 경찰 사살 보너스 법안 통과··학살 우려 고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의회가 경찰이 범죄자를 사살하거나 무력화했을 때 급여의 최대 150%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학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이 25일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법안에는 경찰이 대구경 무기를 압수하거나 범죄자를 무력화했을 때 급여의 10%에서 최대 150%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우에서는 마약 밀매업자들이 장악한 빈곤 인구 밀집 지역인 파벨라에서 공격적인 경찰 작전이 자주 벌어진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리우 주에서 경찰 작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703명으로, 하루 평균 두 명꼴이다. 이번 제도는 '와일드 웨스트 보너스'로 불렸던 1995년 도입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브라질 경찰 작전 중 사망자와 과잉 사망이 급증하면서 해당 제도는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직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진보 성향의 엔히키 비에이라 주 의원은 "폭력을 부추기고 죽음을 제도화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마서 12:17,21)**

하나님, 이전에 비슷한 제도로 사망자가 급증해 폐지되었던 경찰 보너스 제도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폭력과 살인을 부추길 염려가 있는 브라질 상황을 다스려 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위정자들과 브라질교회를 통해 이 나라에 더욱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먼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다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브라질 되게 하소서.

### ▲ 아프간 지진 피해 임산부 1만여 명, 겨울 앞두고 텐트 출산 위기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진 피해 지역에서 수천 명의 임산부가 겨울을 앞두고 텐트에서 출산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성명을 내고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약 1만 1,000명의 임산부가 혹한 속에 텐트에서 출산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과 9월 초 발생한 강진으로 수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면서 피해 지역 주민 10가구 중 9가구가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약 3만 9,000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고 야외에 머물고 있다. 고산지대가 많은 아프가니스탄의 겨울은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어지며 길고 혹독하다. 특히 혹한기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져 신생아와 아동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 또한 탈레반은 여성의 이동과 의료 접근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여성 혼자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수 없고 반드시 남성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이런 제약 때문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 상당수가 전문 의료 지원 없이 텐트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시편 103:13-14)**

하나님, 얼마 전 아프간을 크게 흔들여 놓았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의탁드리며, 특별히 임산부와 집을 잃은 아동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는 주께서 이들을 친히 돌봐주십시오. 빛으로 찾아가 주시고 진리로 계시하여 주셔서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실 뿐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친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를 바라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베푸시며 영원토록 함께하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